

REVIEW 존 르 카레 동명소설 영화화... **리틀 드러머 걸**

로맨스 · 스릴 · 스파이의 매혹

인기 만화·소설이 영화화되는 일이 많다. 널리 알려진 작품일수록 대중에게 어필하기 쉽지만,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지 않다. 원작만큼의 감동을 주는 것이 녹록치 않아서다.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소설 속 세계는 구축되지만 영화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배우의 연기도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감독의 역량으로 극복해야 한다.

'리틀 드러머 걸: 감독판'은 탄탄한 서사와 섬세한 연출, 빈틈없는 연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복수는 나의 것'(2002) '올드보이'(2003) '친절한 금자씨'(2005) '아가씨'(2016) 등 영화만 연출한 박찬욱(56) 감독이 TV드라마에 처음 도전해 관심을 모았다. 6부작인데, 20일 언론 시사회 1·2부가 배일을 벗었다. '역시 박찬욱은 다르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스파이 소설의 대가 존 르 카레(88)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1979년 이스라엘 정보국의 비밀작전에 연루돼 스파이가 된 배우 '찰리'와 그를 둘러싼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다.

소설의 방대한 서사를 몰입도있게 압축했다. 철학적인 대사와 인물의 심리묘사가 마음을 후벼판다. 매혹적인 미장센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간단히 말하면 로맨스 스릴러 첩보물이다. 알 수 없는 이빨이라고 해야 할까, 사랑은 남녀 또는 어느 일방이 매력을 느끼면서 시작된다.

'찰리'(폴로렌스 퓨)는 영국 런던의 극단에서 활동하는 무명 배우다.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잡기 위해 연극과 오디션장을 전전한다. 밝고 털털하지만 무료한 일상에 지쳐있다. 어느날 익명의 후원자가 그녀의 극단을 그리스로 초청한다. 그곳에서 찰리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고 호감을 느낀다. 둘 만의 여행을 떠나자는 남자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고, 낭만적인 로맨스를 꿈꾼다.

하지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알고보니

박찬욱 감독 작... 스파이가 된 여배우와 그를 둘러싼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 담아 진부함 덜어내고 첩보물·로맨스 버무려

이 남자는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의 비밀요원 '가디 베커'(알렉산더 스카스가드)였다. 여행인 줄 알았는데 찰리를 수상한 공간으로 이끈다. 이스라엘 정보국 요원들을 마주한 찰리는 큰 혼란에 빠진다.

이 모든 작전을 기획한 '마틴 크루츠'(마이클 세넨)는 독일 함북판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배후에 테러리스트 '칼릴'이 있음을 확인한다. 그의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스파이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크루츠는 찰리가 자신이 구상한 역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임을 직감하고, 스파이 역할을 제안한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찰리는 이를 받아들인다. 그녀의 마음은 '기습 설레게 하는 사람이 어디로 될지 알 수가 없다'로 요약된다. 베커에게 말이나 표정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지만, 그녀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다. 곳곳에 요원들이 배치돼 긴장감이 감돈다. 나쁜남자를 만난 것일까, 아님 베커도 찰리를 사랑하고 있을까. 로맨스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가운데 2부가 막을 내렸다.

소재 자체만 보면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 감독은 진부함을 최대한 덜어내고, 첩보물과 로맨스를 적절하게 버무렸다. 실트 없이 몰아치는 전개와 화려한 미장센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배우들의 앙상블도 좋다. 영국의 신예 폴로렌스 퓨(23)는 여자의 복잡미묘한 마음을 완벽하



게 그려냈다. 혼돈에 빠진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스웨덴 국민배우 알렉산더 스카스가드(43)도 치명적 매력을 발산하며 존재감을 뽐낸다. 미국 배우 마이클 세넨(45)은 중후한 연기로 제 몫을 다했다.

4~6부에서 영국·독일·그리스·이스라엘 등을 무대로 첩보전이 펼쳐진다. 박 감독은 "로케이션은 재미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고 털어놓았다. "작품에 레바논,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등이 등장하지만 직접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수 없었다. 영국·그리스·체코 등지에서 영리하게 포착해 찍었다. 최소한의 이동경로로 다양한 지역색을 표현하는 게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보람있는 작업이었다."

지난해 영국 BBC와 미국 AMC에서 방송됐다. 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29일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방송판과는 완전히 다른 버전이다. 방송 심의 기준과 상영시간 제한에 따라 제외된 다수의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뉴시스



경찰 "최종훈, 음주단속 경찰에 200만원 주려했다"

뇌물공여의사표시 추가 입건
단체카톡방 몰카 공유 혐의도

음주운전 무마 의혹을 받는 그룹 T1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씨가 2016년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돼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최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를 단속했던 경찰은 최씨가 현장에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사

건을 무마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 경찰은 최씨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6년 2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고, 유 대표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통해 최씨 음주 운전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지난 17일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자신은 "(윤 총경과) 관계 없다"고 했고, 청탁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씨와 정준영(30)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잠든 여성 사진을 올리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위반)로 입건됐다. /뉴시스

'음원강자' 불빨간사춘기, 11개월 만에 컴백

내달 2일 '사춘기집1 꽃기운' 발표

듀오 '불빨간사춘기'가 약 11개월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쇼파르뮤직에 따르면 불빨간사춘기가 4월2일 새 앨범 '사춘기집1 꽃기운'을 내놓는다. 지난해 5월 '여행' 이후 처음이다.

공개된 두 장의 티저에는 봄 기운이 물씬 풍어나 봄을 겨냥한 앨범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2016년 데뷔한 불빨간사춘기는 '우주를 줄게'를 시작으로 '좋다고 말해', '남이 될 수



있을까', '뽕 탈까야', '첫사랑', '여행' 등을 모두 음원차트 1위에 올렸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